

□ **美 현충일(Memorial Day) 기념 연합사령관**에게 보내는 **추모 서한**입니다.

* '17년 美 현충일 : 5. 29.(월), 연합사 5. 25.(목) 기념행사 실시 예정

브룩스 장군 귀하

美 현충일을 맞아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해 산화하신 미국의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한국군 전장병을 대신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美 현충일은 미국의 어떤 기념일보다 의미가 더 큽니다. 6.25 전쟁 당시 수많은 미국 장병들은 오로지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싸우다 산화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와 함께 싸운 美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핵과 미사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한미 양국군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그동안 수많은 도전과 위기를 함께 극복해 왔듯이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한미동맹의 최전방에서 헌신하고 있는 브룩스 장군을 비롯한 주한미군 장병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장군과 장병들의 전승을 기원합니다.

2017년 5월 25일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한 민 구